

재즈를 듣다 22 영화와 재즈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영화의 시작은 루미에르 형제가 1895년 12월 28일 ‘기차의 도착’이라는 50초짜리 필름을 공개한 후부터라고 한다. 이후 30여 년간 무성 영화 시대가 열린다. 사운드트랙이 없으므로 상영할 때마다 구석에서 연주자가 피아노 또는 시네마 오르간으로 반주를 하거나, 미리 녹음한 음악을 틀어줬다고 한다. 어렸을 때 찰리 채플린이 주연한 영화를 재밌게 보곤 했다. 시청하는 내내 흥겨운 디시랜드 재즈가 배경처럼 흘러나왔다. 영화와 재즈는 탄생 시기가 엇비슷해 초기부터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을 것이다. 1927년 개봉한 최초 유성 영화가 ‘재즈 싱어(Jazz Singer)’란 점도 그렇다.

유성 영화가 등장하고 불과 2년 후인 1929년, 세계는 대공황 충격에 빠진다. 역설적으로 미국 사회는 스윙 재즈가 유행한다. 영화 또한 이를 반영한 듯 1930년 ‘재즈의 왕(= King of Jazz)’이 개봉했다. 시간이 흘러 저작권이 소멸한 옛날 영화는 유튜브에서 전편을 시청할 수 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빅밴드 재즈 리더 중 한 사람인 폴 화이트맨(Paul Whiteman)과 가수 Bing Crosby가 등장한다. 무려 ‘재즈 왕’이라 칭송받던 당시와 달리 폴 화이트맨에 관한 후대의 평가는 매우 박하다. 음악적 혁신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쇼 밴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화는 꽤 재밌다. 오래된 흑백 필름에 컬러를 입히는 등 보정 작업을 해놔 훨씬 보기 편했던 탓도 있을 것 같



King of Jazz, 1930



영화와 재즈 QRCode

다. 당시 극장에서 이걸 본 관객은 필름으로 제작한 보드빌 쇼로 즐겼겠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일종의 다큐멘터리다. 재즈사에서 이름으로만 접한 인물을 영화에서나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끌린다.



Birth of the Blues, 1941

유튜브에 올라온 영화를 추적하다 보면 1940년대에 상당히 많은 재즈 관련 영화가 개봉했음을 알 수 있다. 1941년 개봉한 ‘블루스의 탄생(= Birth of the Blues)’은 빙 크로스비가 주연을 맡았다. 클라리넷에 재능이 있는 12세 소년이 부친의 강요로 클래식 교육을 받지만, 별 흥미를 못 느끼고 뉴올리언즈 재즈에 이끌린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초기 재즈에서 흔히 있는 애기를 영화화한 듯하다. 흑인들이 길거리에서 케이크워크를 추는 등 재즈팬으로서 흥미로운 장면이 꽤 많이 나온다. 같은 해 개봉한 ‘밤의 블루스(= Blues in the night)’는 감옥에서 죄수가 부르는 블루스를 듣고 영감을 받아 뉴올리언즈로 향하는 걸로 시작한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초기 재즈에서 밥(Bop)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 또 같은 해에 개봉한 ‘썬 밸리 세레나데(= Sun Valley Serenade)’에선 글렌 밀러 밴드가 대표곡인 ‘인 더 무드(= In The Mood)’를 연주했다. 또 이듬해에 개봉한 ‘오케스트라 마누라들(= Orchestra Wives)’에서 ‘마침내(= At Last)’, ‘우울한 세레나데(= Serenade In Blue)’, ‘칼라마주에서 소녀를 꼬셨다(= I’ve Got A Gal In Kalamazoo)’ 등을 연주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Blues in the night, 1941



Sun Valley Serenade, 1941



Orchestra Wives, 1942

1996년 개봉한 영화 ‘풍월(風月)’은 공리와 장국영이 주연했다. 여기에서 장국영이 ‘너에 관한 천 개의 꿈(= A Thousand dreams of you)’이란 노래를 불러 히트시켰다. 내 또래에겐 90년대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곡 중 하나다. 1937년 개봉한 ‘인생은 오직 한 번뿐(= You Only Live Once)’이란 영화에서 선율이 사용됐다고 한다. 여기에 가사를 붙여 처음 노래한 사람은 스트라이드 재즈 피아노 연주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패츠 월러(Fats Waller)다. 재능뿐만 아니라 쇼맨십에 있어서도 루이 암스트롱을 연상케 하는, 엔터테이너 기질이 다분한 인물이었다. 당연히 여러 영화에도 출연했다. 1943년 개봉한 ‘폭풍우 날씨(= Stormy Weather)’에

출연해 특유의 코믹한 표정으로 ‘그것은 옳지 않아(= That Ain’t Right)’, ‘잘못된 행동이 아니야(= Ain’t Misbehavin)’ 등을 불렀다.



Stormy Weather, 1943

영화 속에는 스트라이드 주법뿐만 아니라 부기우기도 단골처럼 자주 나오곤 한다. 1944년에 ‘부기우기 꿈(= Boogie-Woogie Dream)’이란 13분짜리 단편영화가 제작됐다. 여기에 알버트 애먼스(Albert Ammons), 피트 존슨(Pete Johnson)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미드 룩스 루이스(Meade Lux Lewis) 역시 부기우기 연주자로 유명하다. 1946년 개봉한 ‘멋진 인생(= It’s a Wonderful Life)’은 내용에 있어선 재즈와 무관한 영화이지만 잠깐이나마 찰스턴 댄스 장면이 나오고, 무엇보다 미드 룩스 루이스가 카메오 출연했다.

1947년 개봉한 영화 ‘뉴올리언즈(New Orleans)’는 재즈팬으로서 영화 내용보다 재즈 보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두 사람인 루이 암스트롱과 빌리 홀리데이의 연기를 볼 수 있단 점이 신선한(?) 작품이다. 또한 우디 허먼(Woodrow Herman), 키드 오리(Kid Ory) 등 초기 재즈 연주자가 대거 출연했다.



Boogie-Woogie Dream, 1944



It's a Wonderful Life, 1946



New Orleans, 1947

1950년대가 되면 재즈는 밥에서 하드밥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었지만, 영화에선 여전히 빅밴드가 인기였었던 같다. 1955년에 개봉한 ‘리듬 앤 블루스 리뷰(Rhythm and Blues Revue)’는 라이오넬 햄프턴, 빅 조 터너, 카운트 베이스, 넷 킹 콜, 캡 캘로웨이 등이 대거 출연하는 무대극이다. 원래 재즈 피아니스트였으나 목소리가 워낙 감미로우 가수로 더 유명해진 넷 킹 콜은 1958년 개봉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St. Louis Blues)’에서 주연을 맡았다. 또한, 이 영화에

는 위대한 가스펠 가수인 마할리아 잭슨(Mahalia Jackson)이 나온다. 1961년 개봉한 '파리 블루스(Paris Blues)'는 폴 뉴먼, 시드니 포이티어가 각각 트롬본, 색소폰 연주자로 등장하는 로 맨스 영화다. 루이 암스트롱이 잠깐 나온다.



Rhythm and Blues Revue, 1955



St. Louis Blues, 1958



Paris Blues,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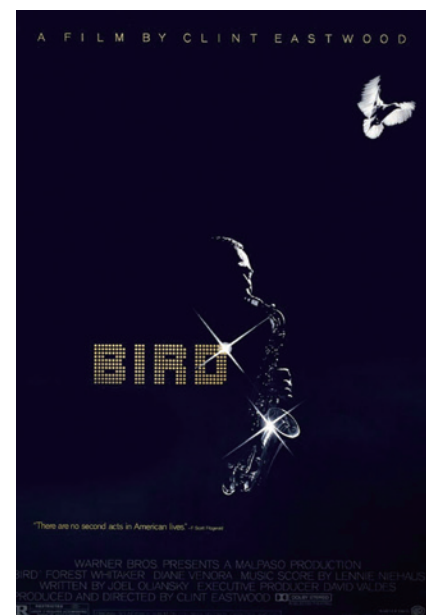
마일즈 데이비스는 1949년 처음 파리를 방문했다. 자서전에서 이 시기를 특별한 시간으로 다뤘다. 첫째, 태어나 처음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고 한다. 둘째, '파리의 하늘 아래 (= Sous le ciel de Paris)'를 부른 여가수 줄리엣 그레코와 만나 연인이 된다. 셋째, 처음 영화 제작에 참여해 음악을 담당했다. 1958년 개봉한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Ascenseur Pour L'Echafaud)'는 이른바 '누벨 바그(La Nouvelle Vague)'의 시초가 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여담으로 마일즈 데이비스는 파리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상실감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3년간 슬럼프에 빠진다. 죽을 고생 끝에 끊었노라고 했지만, 평전에 따르면 헤로인을 끊었을 뿐이고 코카인 습관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



Ascenseur Pour, L'Echafaud 1958



Round Midnight, 1986



Bird, 1988

마약은 재즈의 어두운 면 중 하나다. 현재도 당연히 사회악이지만 20세기 초중반 무렵엔 거의 일상화된 듯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재즈 연주자들이 마약 중독자이기도 했다. 해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더 심각했던 것 같다. 비밥 재즈 피아노의 혁신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버드 파웰(Bud Powell)도 대단히 심각한 중독자였다. 1959년 파리에서 프란시스 포드라스라는 팬과의 만남이 잘 알려져 있다. 포드라스는 파웰의 마약 습관을 끊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86년 개봉한 영화 '라운드 미드나잇(Round Midnight)'은 아마도 버드 파웰 이야기를 각색해 만든 게 아닌가 싶다. 색소폰 연주자 텍스터 고든(Dexter Gordon)이 말년에 주연을 맡아 명연기를 펼쳐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재즈 클럽인 '블루 노트'에서 허비 행콕(Herbie Hancock) 등과 함께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천재 중의 천재로 알려진 찰리 파커(Charles Parker, Jr.) 역시 매우 유명한 마약 중독자이기도 했으며, 결국 35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음을 맞았다.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대단한 재즈팬이었는데, 찰리의 파커 일생을 다룬 영화 '버드(Bird)'를 감독해 1988년 개봉했다.

프란시스 코폴라가 감독해 1984년 개봉한 영화 '커튼 클럽(The Cotton Club)'은 리처드 기어, 다이앤 레인, (영화 '백야'에서 탭댄스로 이름을 알렸던) 그레고리 하인스 등 유명 배우가 대거 출연했지만 아쉽게도 흥행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한다. 되돌아보면 일종의 복고풍이 아니었나 싶은 작품이다. '커튼 클럽'이 1920~30년대 뉴욕 할렘에 있었던 나이트클럽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1996년 개봉한 영화 '캔자스 시티(Kansas City)'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뉴욕과는 분위기가 다른 재즈 도시였다. 듀크 엘링턴이 커튼 클럽을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라면 캔자스 시티는 카운트 베이시와 레스터 영의 도시다. 비록 재즈 뮤지션이 주인공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이거나 두 도시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사실 두 곳 모두 현재에도 곳곳이 악명 높은 우범 지역이라 직접 방문은 자제하는 게 좋을 듯하다.



The Cotton Club 1984



Kansas City, 1996



The Fabulous Baker Boys, 1989



Mo' better blues, 1990



Whiplash,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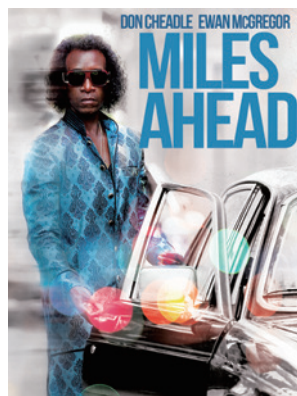


스윙걸즈, 2004

80년대에 개봉한 재즈 영화 중 개인적으로 1989년 ‘사랑의 행로(The Fabulous Baker Boys)’에 각별한 애착이 있다. 한마디로 피아노 위에 올라가 도발적인 모습으로 ‘야단법석(= Makin’ Whoopee)’을 부르는 미셸 파이프에 홀렸다.

‘모 베퍼 블루스(Mo’ better blues)’는 재즈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일지라도 잘 알려진 명곡이다. 선율이 오음음계로 돼 있어 많은 이가 듣자마자 즉시 끌리는 듯하다. 1990년 스파이크 리 감독이 만든 동명의 영화에 수록된 사운드트랙이다. 주제곡 유명세에 비해 영화 자체는 의외로 시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 재즈 팬이라면 사운드 트랙에 참여해 명연주를 들려준 두 사람, 테렌스 블렌차드(트럼펫)와 브랜포드 마살리스(색소폰)를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재즈 관련 영화는 잊을만하면 하나씩 개봉이 되는 편이다. 2014년 개봉한 ‘위플래시(Whiplash)’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웬지 2004년 개봉한 일본 영화 ‘스윙걸즈(スウィングガールズ)’를 떠올리게 한다. 마일즈 데이비스가 은둔했던 시기를 영화화한 2015년 ‘마일즈(Miles Ahead)’, 같은 해에 개봉해 켓 베이커의 일생을 다룬 ‘본 투 비 블루(Born to Be Blue)’, 심지어 월트 디즈니도 2020년에 ‘소울(Soul)’이라는 만화 영화를 개봉했다. 재즈팬으로서 가까운 미래에 ‘아! 이걸 정말 좋았다’고 느낄만한 작품이 뭐가 나올지 기대해 본다. 🎵



Miles Ahead, 2015



Born to Be Blue, 2015



Soul, 2020